

懷疑主義 批判(二)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

裴相河

『우리는 먹어야만 산다』-이는 마모리 보아도 反駁 할 수 업는 眞理이다. 다시 말하면 客觀的 普遍妥當性을 가진 事實-自明的 命題라 하지 안할 수 업다. 그러치만은 『우리는 먹어야만 산다』는 眞理를 몇 萬番 거듭 說敎한다 할지라도 이 說敎만으로써는 當場에 굶주린 者의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업다. 굶주린 者에겐 『배불름』이 價値라 할 것 가트면 『우리는 먹어야만 산다』라는 眞理는 굶주린 者에게는 價値 업는 眞理라 하지 안흐 룯 업다. 그럼으로 『우리는 먹어야 산다』라는 自明的 命題도 다른 모-든 環境的 事況과의 關聯 업시 생각 할 새엔 客觀的 普遍妥當性을 가졌다 할 수 잇드래도 『價値』라는 立場에서 볼 것 가트면 客觀的 普遍妥當性을 갖지 못함이라고 하는 수 박게 업다.

哲人은 假面을 쓴 眞理의 錯誤者들이 헛된 理論으로 眞理 아닌 虛理로 우리에게 가장 豊富한 生活價値를 約束하다십히 高喊치고 잇슴을 본다. 그들은 그들의 認識 錯誤를 自覺치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認識 錯誤까지를 要求하고 잇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價値 업는 眞理만으로써의 眞理를 生에 굶주린 그네들에게 說敎하는 非現實的인 覺究도 적지안다. 吾人은 兩者를 아울러 실패하는 수 박게 업다. 前者는 僞善者인 싸담에 그리고 候者는 生에 對한 木石인 싸담이다.

썸쓰의 實際主義는 所用잇는 것이야만 眞理라고 한다. 哲學 上의 正統派(이런 語句를 認容한다면)는 所用잇든 所用업든 쏘는 個個人이 그것을 許認하든 안하든 眞理는 언제든지 眞理로서의 絕對性을 갖고 잇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吾人은 썸쓰의 實際主義도 許認하고 십고 正統派의 絕對的 眞理性도 쏘한 許認하고 십다. 그러나 吾人에게 實際主義도 絕對的 眞理性도 다 가티 滿足을 주지 못하고 잇다.

웨 그러냐하면 吾人은 正統派에 싸라 眞理의 絕對性 卽 所用업는 眞理의

存在를否認 할 수 업스나 또한 設令 所用업는 眞理가 잇다한들 그것은 우리의 生活에 잇서서 잇스나 업스나 下等 相關업는 價値업는 眞理라고도 할 수 잇는 砵답이다. 다시 말하면 吾人은 一畵으로 眞理의 探究者이면서도 他面에 잇서서 (根本에 잇서서)살지 안흐면 아니 되는 存在인 砵답이다. 그럼으로 實際主義의 缺陷 正統派의 缺陷에서 生기는 當然한 歸結로 實際主義의 眞理觀과 正統派의 眞理觀을 綜合한 折衷的 眞理觀이 生기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折衷的 眞理觀이란 立場에서 哲人은 眞理를

一, 眞理란으로의 眞理

李, 價値로의 眞理로서 二大分하고 竝다. 一은 正統派의 主眼點이며 二는 實際主義의 力說點이다. 砵라서 一은 實際主義의 缺陷이며 二는 正統派의 缺陷이라면 過言일지 몰으되 見地에 砵라선 이리케 解釋 함도 不當타고는 할 수 업슬 것이다.

如